



국제이동과 보호, 포괄적 조약 가능성?

한국이민학회 · IOM이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사람들이 국경 간 이동을 하지만, 국제법은 일부 유형의 국제이주에 관한 기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강제로 국경을 건너야 하는 사람 등의 권리는 간과되고, 결국 상당수의 이동하는 사람들은 보호와 책임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의 공백을 메우고 포괄적·권리친화적인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2017년 콜럼비아대학교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제이동위원회(International Mobility Commission)는 모델국제이동협약(안)(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델협약(안)은 기존 국제법에 근거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재차 확인하고, 국제이동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민학회와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동참하고자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델국제이동협약(안)에 관한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많은 학자, 정책입안자, 활동가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적 맥락에서 국제적 논의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 (한국이민학회 회장)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원장)

1차 (9월 28일)	모델국제이동협약(안)이란?	
	1. 방문객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
	2. 관광객	이병하 서울시립대 교수
2차 (10월)	3. 학생	윤인진 고려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나현웅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4. 이주노동자, 투자자, 거주자	
3차 (11월)	5. 난민, 강제이주자, 비호신청자와 국제적 보호	
	6. 인신매매 피해자와 위기상황에 있는 이주자의 지원과 보호	
	7. 가족재결합	
	8. 조약기구	

○ 일시 : 9월 28일(금) 오후 4시

○ 장소 : 삼성생명 서초타워 5층 510호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 동 기획세미나는 한국이민학회의 월례발표회를 대신하여 실시됩니다.